

2024  
고2 문학  
해냄

## 2024 고2 문학 해냄 | 3(1)(1) 흥보가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직전 보강 유형

「흥보가」의 표현상, 서술상 특징과 「흥보가」에 반영된 당시 사회적 상황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형식을 통해 어떤 것을 드러내는지 관련지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아니리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겠소. 나 오늘 읍내(邑內) 좀 갔다 올라요.”, “읍내는 무엇하러 가실라요.”, “환자(還子) 말은 호방(戶房)한테 환자 섬이나 얻어야 굶는 자식들 살려야 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구사일생(九死一生)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내오오.”, “갓은 어디다 두었소.”, “굴뚝 속에 두었지.”, “어째서 굴뚝 속에다 두었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대비(趙大妃) 국상(國喪) 시에 백립(白笠) 갓양이 단단하다 해서 꼬름에 꼬슬려 쓰려고 굴뚝 속에다 두었지. 내 도복(道服) 좀 내오오.”, “도복은 어디다 두었소.”, “장 안에 들었지.”, “아니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허허 이 사람아 닭구장은 장이 아닌가.” 흥보가 치장을 채리고 질청(秩廳)을 들어가는되,

#### 자진모리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치레를 볼작시면 철대 부러진 헌 파립(破笠) 버레줄 총총 매여 조사 갓끈 달아 쓰고 편자 떨어진 헌 망건(網巾) 밥풀 관자(貫子) 노당줄을 뒤통 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 도포(道袍) 실띠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兩班)이라고 여덟팔 자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

#### 아니리

흥보가 들어가며 별안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모리 궁핍(窮乏)할망정 반남 박씨(潘南朴氏) 양반인디 호방을 보고 허계를 하나 존경(尊敬)을 할까. 아서라 말은 하되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열리는 수밖에 없다.” 질청으로 들어가니 호방이 문(門)을 열고 나오다가, “박 생원(朴生員) 들어오시오.”, “호방 뵈 지 오래군.”, “어찌 오셨소.”, “양도(糧道)가 부족(不足)해서 환자 한 섬만 주시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이 어떨는지. 하하하.”, “박 생원, 품 하나 팔아 보오.”,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 말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座首)가 병영 영문(兵營營門)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 가서 곤장(棍杖)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석 냥씩 설흔 냥은 꼬아 논 돈이오. 마샅까지 닷 냥 제시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 보오.”, “돈 생길 품이니 가고말고. 매품 팔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내 발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닷 냥을 나를 내어 주지.”

#### 중모리

저 아전(衙前) 거동(舉動)을 보아라. 궤(櫃) 문을 철컹 열고 돈 닷 냥을 내어 주니 흥보가 받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平安)히 다녀오오.” 박흥보 좋아라고 질청 밖으로 썩 나서서, “얼씨구나 좋구나 돈 봐라 돈 돈 봐라 돈돈 돈돈돈 돈을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三綱五倫)이 다 보이고 조금 이따 나는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져도 보이는 건 돈밖에 또 있느냐. 돈돈돈 돈 봐라 돈.” 떡국집으로 들어를 가서 떡국 한 톨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릿집으로 들어를 가서 막걸리 두 톨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느리우고 죽통을 빼쓰리고, “대장부(大丈夫) 한 걸음에 엽전(葉錢) 실흔땀 냥이 들어를 간다. 얼씨구나 돈 봐라.”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딜 갔다가 집 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루루루 쫓아 나와서 영접(迎接)하는 게 도리(道理) 옳지. 계집 이 사람아 당돌(唐突)이 앉아서 좌이부동(坐而不動)이 웬일인

가, 에라 이 사람 몫쓸 사람.”

### 중중모리

홍보 마누라 나온다 홍보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봐.”, “놓아두어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根本)을 자네 아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孟嘗君)의 수레바퀴처럼 둥굴 둥굴게 생긴 돈 부귀공명(富貴功名)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 나 돈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돈돈돈 돈돈돈 돈 봐라.”

### 아니리

“이 돈 가지고 쌀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구름하게 열한 통만 쑤소.” 육죽을 쑤어서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 먹여 노니 모두 식곤증(食困症)이 나서 앉은자리에서 고자백이 잠을 자는디 죽 말국이 코끝에서 소주(燒酒) 후주 내리듯 땡강땡강하갔다. 홍보 마누라가 이 틈을 타서 막내둥이를 하나 만들었지. [B] “여보 영감, 이 돈이 무슨 돈이오, 돈 속이나 좀 압시다.”,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닐세.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석냥씩 준다기에 대신 가기로 샅전으로 받아온 돈이제.” 홍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아이구 여보 영감, 중한 가장 매품 팔아 먹고산다는 말은 고금천지(古今天地) 어디 가 보았소.”

### 진양조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천불생무연지인(天不生無緣之人)이요 지불장무명지초(地不長無名之草)라. 하늘이 무 [C] 너저도 솟아날 궁기가 있는 법이니 설마한들 죽사리카. 제발 덕분에 가지 마오. 병영 영문 곤장 한 대를 맞고 보면 종신(終身) 골병(骨病)이 된답디다. 여보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를 마오.”

### 아니리

홍보 자식들이 저의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거우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아버지, 병영 가십니까.”, “오냐 병영 간다.”,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풍안(風眼) 하나 사다 주시오.”, “풍안은 무엇할래.”, “뒷동산에 가서 나무 할 때 쓰고 하면 먼지 한 점 안 들고 좋지요.” 홍보 큰아들놈이 나왔으며, “아이구 아버지.”, “이 자식아, 너는 왜 또 부르느냐.”,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각씨(閻氏) 하나 사다 주시오.”, “각씨는 무엇할래.”, “아버지 어머니 재산(財産) 없어 날 못 여워 주니 데리고 막 걸리 장사할라요.”

### 중모리

아침밥을 지어 먹고 병영 길을 내려간다. 허유허유 내려가며 신세(身世) 자탄(自歎)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八字) 좋아 부귀영화(富貴榮華)로 잘 사는디 이놈의 신세는 어이하어 이 지경(地境)이 웬 말이나.” 병영 영문 당도하여 치어다보니 대장기(大將旗)요 내려 굽어보니 숙정패(肅靜牌)로구나. 심산맹호(深山猛虎) 위엄(威嚴) 같은 용자(勇字) 붙인 군노 사령(軍奴使令)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간다. 그때에 박홍보는 숫한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서 있구나.

### 아니리

방울이 떨렁, 사령이 “에에이.” 야단(惹端)났지. 홍보가 삼문(三門) 간에 들어서서 가만히 굽어보니 죄인(罪人)이 볼기를 맞거늘, 그 사람들도 돈 벌러 온 줄 알고, “저 사람들은 먼저 와서 돈 수백냥(數百兩) 번다. 나도 볼기 까고 옆드려 볼까?” 옆드려 보니, 사령 한 쌍이 나오다가, “병영이 설치(設置)된 후로 볼기 전(塵) 보는 놈이 생겼구나.” 사령 중에 뜻밖에 홍보를 아는 사람이 있던가. “아니 박 생원 아니시오.”, “알아맞혔구만그러.”, “당신 곱았소.”, “곱다니, 계란(鷄卵)이 곱지 사람이 곱아. 그래 어쨌단 말인가.”, “박 생원 대신이라고 와서 곤장 열 대 맞고 돈 설흔냥 받아 가지고 벌써 떠나갔소.” 홍보가 기가 막혀, “그놈이 어떻게 생겼든가.”, “키가 구척(九尺)이요 방울눈에 기운(氣運)이 좋습디다.” 홍보가 이 말을 듣더니, “허허 전날 밤에 우리 마누라가 밤새도록 울더니마는 옆집 궤수란 놈이 발등거리를 하였구나.”

- 작자 미상, 「홍보가」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② 산문체와 운문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 ③ 희화화를 통해 작품의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일상적 구어의 사용으로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장면을 극대화하여 상황의 긴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2.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대화 속에서 사자성어를 활용하고 있다.
- ㄴ.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 ㄷ.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ㄹ. 상황을 과장하여 이야기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흥보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 후기 민중의 삶은 매우 절망적이다. 특히 흥보와 그의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은 비극적이고 암울하다. 「흥보가」는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비애의 정서가 아니라 골계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즉 조선 후기 민중의 삶의 애환을 고통스럽게만 그리지 않고 이를 건강한 웃음으로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 ① 육죽을 먹고 곤히 자는 흥보 가족의 모습에서 해학과 골계미가 느껴지는군.
- ② 매품을 팔아 돈을 벌려는 흥보의 상황은 당시 민중의 절망적 삶을 보여 주는군.
- ③ 먹을 식량이 없어 나라에 곡식을 꾸러 하는 흥보의 모습은 가난에 고통받는 민중의 모습을 대표하는군.
- ④ 흥보가 마삿을 받아 처와 함께 돈타령하는 모습은 암울한 현실을 힘을 모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군.
- ⑤ 매품 팔러 갔던 흥보와 사령의 대화 장면은 웃음을 통해 비극적인 상황을 이겨내려는 당시 민중들의 삶의 자세가 반영되었군.

4. 다음은 판소리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한 표이다. 이를 바탕으로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창	아니리
역할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 및 평가하거나 인물의 정서를 전함.	인물 간의 갈등 상황과 관련 정보를 제공함.
특징	청중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 스스로 작중 인물이 되게 하여 그 정서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거나 체험하게 하여 정서적 긴장과 감흥을 유발함.	작품 속 세계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게 하여 작중 인물과 사건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정서적 이완 기능을 함.

- ① [B]에서는 돈의 출처를 흥보 처가 알게 된다는 정보를 청중에게 제공하고 있군.
- ② [B]에서는 흥보와 흥보 처의 상황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군.
- ③ [C]에서는 흥보 처의 애절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파악하여 느낄 수 있겠군.
- ④ [C]에서는 흥보와 흥보 처의 갈등 상황을 통해 시대상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겠군.
- ⑤ [B]와 [C]를 오가며 청중은 작품 속 세계와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극적 긴장과 이완을 체험하겠군.

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판소리에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 관념적이지 않은 현실적인 인물이 당대의 구어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언어의 사실성을 통해 이를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풍자, 해학과 같은 문학적 장치를 통해 절망적인 민중의 삶을 고통스럽게만 그리지 않고 이를 건강한 웃음으로 극복하려 하였다.

- ① 삼강오륜보다 돈을 중시하는 흥보는 물질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관념적인 인물로 볼 수 있어.
- ② 매품팔이가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가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패한 사회였음을 알 수 있어.
- ③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이라며 돈타령을 하는 장면에서 돈의 위력이 높아진 당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 ④ 질청에서 만난 호방에게 존대를 할지 말을 낮출지 고민하다 웃음으로 얼버무리는 흥보의 모습은 조선 후기 양반의 권위가 실추된 상황을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어.
- ⑤ 매품을 팔러 가는 길에 흥보가 ‘팔자 좋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과 자신을 대조하며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에서 빈부 격차가 심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어.

## 신유형

「홍보가」의 표현상, 서술상 특징과 「홍보가」에 반영된 당시 사회적 상황에 대해 묻는 문제 외에는, 단순히 등장인물 태도 등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 갈래의 특징을 묻는 문제, 창과 아니리에 대해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창과 아니리에 대해 묻는 문제는 빈칸을 제시한 후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장단(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장단에 어울리는 장면이 무엇인지 각 장단의 특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자진모리

홍보가 들어간다, 홍보가 들어간다. 홍보 치레를 볼작시면 철대 부러진 헌 파립(破笠) 버레줄 총총 매여 조사 갓끈 달아 쓰고 편자 떨어진 헌 망건(網巾) 밥풀 관자(貫子) 노당줄을 뒤통 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 도포(道袍) 실띠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兩班)이라고 여덟팔 자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

#### 아니리

홍보가 들어가며 별안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모리 궁핍(窮乏)할망정 반남 박씨(潘南朴氏) 양반인디 호방을 보고 허계를 하나 존경(尊敬)을 할까. 아서라 말은 하되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열리는 수밖에 없다.” 질청으로 들어가니 호방이 문(門)을 열고 나오다가, “박 생원(朴生員) 들어오시오.”, “호방 뵈 지 오래군.”, “어찌 오셨소.”, “양도(糧道)가 부족(不足)해서 환자 한 섬만 주시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이 어떨는지. 하하하.”, “박 생원, 품 하나 팔아 보오.”,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 말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座首)가 병영 영문(兵營營門)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 가서 곤장(棍杖)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석 냥씩 설흔 냥은 곱아 논 돈이오. 마삿까지 닷 냥 제시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 보오.”, “돈 생길 품이니 가고말고. 매품 팔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내 발로 다녀올 테

니 그 돈 닷 냥을 나를 내여 주지.”

#### 중모리

저 아전(衙前) 거동(舉動)을 보아라. 궤(櫃) 문을 철컹 열고 돈 닷 냥을 내여 주니 홍보가 받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平安)히 다녀오오.” 박홍보 좋아라고 질청 밖으로 썩 나서서, “얼씨구나 좋구나 돈 봐라 돈 돈 봐라 돈돈 돈돈돈 돈을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三綱五倫)이 다 보이고 조금 이따 나는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져도 보이는 건 돈밖에 또 있느냐. 돈돈돈 돈 봐라 돈.” 떡국집으로 들어를 가서 떡국 한 푼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릿집으로 들어를 가서 막걸리 두 푼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느리우고 죽통을 빼뜨리고, “대장부(大丈夫) 한 걸음에 엽전(葉錢) 설흔 닷 냥이 들어를 간다. 얼씨구나 돈 봐라.”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딜 갔다가 집 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루루루 쫓아 나와서 영접(迎接)하는 게 도리(道理) 옳지. 계집 이 사람아 당돌(唐突)이 앉아서 좌이부동(坐而不動)이 웬일이 가, 에라 이 사람 몸쓸 사람.”

#### 중중모리

홍보 마누라 나온다 홍보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봐.”, “놓아두어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根本)을 자네 아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孟嘗君)의 수레바퀴처럼 둥굴 둥굴게 생긴 돈 부귀공명(富貴功名)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 나 돈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절시구 돈돈돈 돈돈돈 돈 봐라.”

(중략)

#### 진양조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천불생무연지인(天不生無緣之人)이요 지불장무명지초(地不長無名之草)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궁기가 있는 법이니 설마한들 죽사리까. 제발 덕분에 가지 마오. 병영 영문 곤장 한 대를 맞고 보면 종신(終身) 골병(骨病)이 된답디다. 여보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를 마오.”

#### 아니리

홍보 자식들이 저의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

리 들은 겨우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아버지, 병영 가십니까.”, “오냐 병영 간다.”,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풍안(風眼) 하나 사다 주시오.”, “풍안은 무엇할래.”, “뒷동산에 가서 나무 할 때 쓰고 하면 먼지 한 점 안 들고 좋지요.” 흥보 큰아들놈이 나왔으며, “아이구 아버지.”, “이 자식아, 너는 왜 또 부르느냐.”,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각씨(閻氏) 하나 사다 주시오.”, “각씨는 무엇할래.”, “아버지 어머니 재산(財産) 없어 날 못 여워 주니 데리고 막 걸리 장사할라요.”

#### 중모리

아침밥을 지어 먹고 병영 길을 내려간다. 허유허유 내려가며 신세(身世) 자탄(自歎)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八字) 좋아 부귀영화(富貴榮華)로 잘 사느니 이놈의 신세는 어이하어 이 지경(地境)이 웬 말이냐.” 병영 영문 당도하여 치어다보니 대장기(大將旗)요 내려 굽어보니 숙정패(肅靜牌)로구나. 심산맹호(深山猛虎) 위엄(威嚴) 같은 용자(勇字) 붙인 군노 사령(軍奴使令)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간다. 그때에 박흥보는 숫한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서 있구나.

- 작자 미상, 「흥보가」

####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② 현재형 문장으로 현장감을 살렸다.
- ③ 창자의 전문적인 기법을 필요로 한다.
- ④ 구어체 문장을 사용하여 생동감을 준다.
- ⑤ 작품 속 인물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흥보의 처와 자식들은 흥보가 생계를 위해 선택한 방법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있다.
- ② 흥보는 양반이라는 신분에 맞게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다.
- ③ 호방에게도 높임 표현을 쓸 정도로 흥보는 평소 사람들에게 예의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지녔다.
- ④ 흥보와 흥보의 처는 운명론적 가치관을 지녔으며 현실에 대해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흥보는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양반의 체면과 품위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적인 구어체와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잘 살리고 있다.
- ② 창과 아니리가 번갈아 제시되면서 정서적 긴장과 이완이 교차되고 있는 구조를 지녔다.
- ③ 양반과 평민의 언어가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아 향유 계층이 폭넓고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인물이 처한 비극적 상황이 부각되어 있기에 골재미보다 비장미가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 ⑤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필요 이상으로 장황하게 열거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표현이 있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엇다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들어라. 내가 형세가 있고 보면 네 장가가 여태 있으며, 중한 가장(家長)을 굶주리게 하고 어린 자식들을 벗기겠느냐.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이 다 녹는다.”

(나) “구사일생(九死一生)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내오오.”, “갓은 어디다 두었소.”, “굴뚝 속에 두었지.”, “어째서 굴뚝 속에다 두었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대비(趙太妃) 국상(國喪) 시에 백립(白笠) 갓양이 단단하다 해서 꼬름에 꼬슬려 쓰려고 굴뚝 속에다 두었지. 내 도복(道服) 좀 내오오.”, “도복은 어디다 두었소.”, “장 안에 들었지.”, “아니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허허 이 사람아 닭구장은 장이 아닌가.”

(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차례를 볼작시면 철대 부러진 헌 파립(破笠) 버레줄 총총 매여 조사 갓끈 달아 쓰고 편자 떨어진 헌 망건(網巾) 밥풀 관자(貫子) 노당줄을 뒤통 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 도포(道袍) 실띠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놀러 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兩班)이라고 여덟팔자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

(라) “내가 아모리 궁핍(窮乏)할망정 반남 박씨(潘南朴氏) 양반인의 호방을 보고 허계를 하나 존경(尊敬)을 할까. 아서라 말은 하되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열리는 수밖에 없다.” 질청으로 들어가니 호방이 문(門)을 열고 나오다가, “박 생원(朴生員) 들어오시오.”, “호방 뵈 지 오래군.”, “어찌 오셨소.”, “양도(糧道)가 부족(不足)해서 환자 한 섬만 주시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이 어떨는지. 하하하.”, “박 생원, 품 하나 팔아 보오.”,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말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座首)가 병영 영문(兵營營門)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 가서 곤장(棍杖)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석 냥씩 설흔 냥은 꼬아 논 돈이오. 마삿까지 닷 냥 제시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 보오.”

(마) “아니 박 생원 아니시오.”, “알아맞혔구만그려.”, “당신 굶았소.”, “굶다니, 계란(鷄卵)이 굶지

사람이 굶아. 그래 어쨌단 말인가.”, “박 생원 대신 이라고 와서 곤장 열 대 맞고 돈 설흔 냥 받아 가지고 벌써 떠나갔소.” 흥보가 기가 막혀, “그놈이 어떻게 생겼든가.”, “키가 구 척(九尺)이요 방울눈에 기운(氣運)이 좋습니다.”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허허 전날 밤에 우리 마누라가 밤새도록 울더니마는 옆집 께수란 놈이 발등거리를 하였구나.”

뒷부분의 줄거리

매품을 팔지 못한 흥보는 놀보 집으로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오히려 매만 맞고 쫓겨난다. 이때 한 도승이 찾아와 집터를 잡아 주고, 흥보 내외는 그 자리에 집을 짓는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자, 흥보의 움막에 제비가 찾아와 새끼 두 마리를 낳는다. 제비 새끼 한 마리가 날기 연습을 하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자, 흥보는 제비 새끼의 부러진 다리를 잘 치료해 준다. 그 후 흥보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로 인해 큰 부자가 된다. 이 소문을 들은 놀보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한 후, 그 제비를 강남으로 날려 보낸다. 놀보는 이듬해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심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 놀보는 잘못을 뉘우치고 흥보를 찾아가 형제간의 우애를 되찾는다.

- 작자 미상, 「흥보가」

9.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나):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우리 민족 특유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 ③ (다):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체면을 중시하는 허례허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라): 사회 변화로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돈이 우선시되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마): 흥보가 처한 문제가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였음을 보여 준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가)~(마)를 구분할 때, 그 구분이 적절한 것은?

<보기>

판소리는 창, 아니리, 너름새, 추임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너름새는 광대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며, 추임새는 광대의 소리에 흥을 돋우기 위해 고수나 청중이 삽입하는 소리이다. 그러나 문학의 영역에서는 이 두 가지는 다루지 않고 주로 인물의 정서를 표현하는 창과 장면 묘사를 다루는 아니리만 다루는 것이 보통이다.

	창	아니리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다)	(나), (라), (마)
③	(가), (마)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마)	(다), (라)

11. 뒷부분 줄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복한 결말을 통해 공연에 참여한 민중들은 정서적 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 ② 행복한 결말은 고전 문학에서 자주 보이는 결말로 민중의 소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형제간의 우애를 되찾게 된다는 내용은 이 작품에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 ④ 권선징악, 인과응보 등의 표면적 주제는 양반층이 참여하여 주제 형성에 관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 ⑤ 제비의 도움으로 부자가 됐다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음을 보여 준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엇다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들어라. 내가 형세가 있고 보면 네 장가가 여태 있으며, 중한 가장(家長)을 굶주리게 하고 어린 자식들을 버기겠느냐. 못 먹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이 다 녹는다.”

아니리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찼니 무슨 재수가 있겠소. 나 오늘 읍내(邑內) 좀 갔다 올라고요.”, “읍내는 무엇하러 가실라고요.”, “환자(還子) 말은 호방(戶房)한테 환자 섬이나 얻어야 굶는 자식들 살려야 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구사일생(九死一生)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내오오.”, “갓은 어디다 두었소.”, “굴뚝 속에 두었지.”, “어째서 굴뚝 속에다 두었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대비(趙太妃) 국상(國喪) 시에 백립(白笠) 갓양이 단단하다 해서 고름에 고슬러 쓰려고 굴뚝 속에다 두었지. 내 도복(道服) 좀 내오오.”, “도복은 어디다 두었소.”, “장 안에 들었지.”, “아니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허허 이 사람아 닭구장은 장이 아닌가.” 흥보가 치장을 채리고 질청(秩廳)을 들어가는 뒤,

[ ㉡ ]

저 아전(衙前) 거동(舉動)을 보아라. 궤(櫃) 문을 철컹 열고 돈 닷 냥을 내어 주니 흥보가 받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平安)히 다녀오오.” 박흥보 좋아하고 질청 밖으로 썩 나서서, “얼씨구나 좋구나 돈 봐라 돈 돈 봐라 돈돈 돈돈돈 돈을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三綱五倫)이 다 보이고 조금 이따 나는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져도 보이는 건 돈밖에 또 있느냐. 돈돈돈 돈 봐라 돈.” 떡국집으로 들어를 가서 떡국 한 톨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릿집으로 들어를 가서 막걸리 두 톨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느리우고 죽통을 빼뜨리고, “대장부(大丈夫) 한 걸음에 엽전(葉錢) 설흔당냥이 들어를 간다. 얼씨구나 돈 봐라.”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딜 갔다가 집 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루루루 쫓아 나와서 영접(迎接)하는 게 도리(道理) 옳지. 계집 이 사람아



당돌(唐突)이 앉아서 좌이부동(坐而不動)이 웬 일인가,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 ㉠ ]

흥보 마누라 나온다 흥보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봐.”, “놓아두어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根本)을 자네 아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孟嘗君)의 수레바퀴처럼 둥굴 둥굴게 생긴 돈 부귀공명(富貴功名)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 나 돈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돈돈돈 돈돈돈 돈 봐라.”

**아니리**

“이 돈 가지고 쌀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구름하게 열한 통만 쑈소.” 육죽을 쑤어서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 먹여 노니 모두 식곤증(食困症)이 나서 앉은자리에서 고자백이 잠을 자는디 죽 말국이 코끝에서 소주(燒酒) 후주 내리듯 땡강땡강하갔다. 흥보 마누라가 이 틈을 타서 막내둥이를 하나 만들었지. “여보 영감, 이 돈이 무슨 돈이오, 돈 속이나 좀 압시다.”,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닐세.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석 냥씩 준다기에 대신 가기로 샅전으로 받아온 돈이제.”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아이구 여보 영감, 중한 가장 매품 팔아 먹고산다는 말은 고금천지(古今天地) 어디 가 보았소.”

**진양조**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천불생무연지인(天不生無緣之人)이요 지불장무명지초(地不長無名之草)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궁기가 있는 법이니 설마한들 죽사리까. 제발 덕분에 가지 마오. 병영 영문 곤장 한 대를 맞고 보면 종신(終身) 골병(骨病)이 된답디다. 여보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를 마오.”

- 작자 미상, 「흥보가」

12. 다음은 학생이 판소리 소설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해 찾은 자료이다. 자료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장단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료>

‘아니리’는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나가는 부분으로 정서적 이완 기능을 한다.

‘창’은 판소리 중 인물의 정서가 고양되었을 때 음악의 가락으로써 그 정서를 표현하고, 정서적 긴장과 감흥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장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진양조** 가장 느린 장단으로 애절하고 무거운 느낌을 나타낼 때 쓰인다.

**중모리** 보통 빠르기의 장단으로 담담하고 안정감을 주며 태연한 느낌을 줄 때 쓰인다.

**휘모리** 매우 빠른 장단으로 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분주한 느낌을 줄 때 쓰인다.

**자진모리** 섬세하면서도 명랑하고 밝은 느낌을 줄 때 쓰인다.

**중중모리** 춤을 추듯 흥겨운 장면이나 활발하게 걷는 장면에 주로 쓰인다.

- |   | ㉠   | ㉡   | ㉢    |
|---|-----|-----|------|
| ① | 중모리 | 휘모리 | 중중모리 |
| ② | 중모리 | 중모리 | 중중모리 |
| ③ | 진양조 | 휘모리 | 자진모리 |
| ④ | 진양조 | 중모리 | 중중모리 |
| ⑤ | 진양조 | 중모리 | 자진모리 |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진양조

“엇다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들어라. 내가 형세가 있고 보면 네 장가가 여태 있으며, 중한 가장(家長)을 굶주리게 하고 어린 자식들을 버기겠느냐. 못 먹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이 다 녹는다.”

아니리

홍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겠소. 나 오늘 읍내(邑內) 좀 갔다 올라요.”, “읍내는 무엇하러 가실까요.”, “환자(還子) 말은 호방(戶房)한테 환자 섬이나 얻어야 굶는 자식들 살려야 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구사일생(九死一生)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내오오.”,

“갓은 어디다 두었소.”, “굴뚝 속에 두었지.”, “어째서 굴뚝 속에다 두었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대비(趙太妃) 국상(國喪)시에 백립(白笠) 갓양이 단단하다 해서 고름에  
㉠ 고슬려 쓰려고 굴뚝 속에다 두었지. 내 도복(道服) 좀 내오오.”, “도복은 어디다 두었소.”, ㉡ “장 안에 들었지.”, “아니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시오.”, “허허 이 사람이 닭구장은 장이 아닌가.” 홍보가 치장을 채리고 질청(秩廳)을 들어가는데,

자진모리

홍보가 들어간다, 홍보가 들어간다. 홍보 차례를 불작시면 철대 부러진 헌 파립(破笠) 버레줄 총총 매여 조사 갓끈 달아 쓰고 편자 떨어진 헌 망건(網巾) 밥풀 관자(貫子) 노당줄을 뒤통  
㉢ 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 도포(道袍) 실띠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兩班)이라고 여덟팔자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

아니리

홍보가 들어가며 별안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모리 궁핍(窮乏)할망정 반남 박씨(潘南朴氏) 양반인디 호방을 보고 허계를 하나 존경(尊敬)을 할까. 아서라 말은 하되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얼리

는 수밖에 없다.” 질청으로 들어가니 호방이 문(門)을 열고 나오다가, “박 생원(朴生員) 들어오시오.”, ㉣ “호방 뵈 지 오래군.”, “어찌 오셨소.”, “양도(糧道)가 부족(不足)해서 환자 한 섬만 주시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이 어떨는지. 하하하.”, “박 생원, 품 하나 팔아 보오.”,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말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座首)가 병영 영문(兵營營門)에 잡혔는데 좌수 대신 가서 곤장(棍杖)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석냥씩 설흔냥은 꼬아 논 돈이오. 마삿까지 닷냥 제시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 보오.”, “돈 생길 품이니 가고말고. 매 품 팔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내 발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닷냥을 나를 내어 주지.”

중모리

㉤ 저 아전(衙前) 거동(舉動)을 보아라. 궤(櫃) 문을 철컹 열고 돈 닷냥을 내어 주니 홍보가 받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平安)히 다녀오오.” 박홍보 좋아라고 질청 밖으로 썩 나서서, ㉥ “얼씨구나 졸구나 돈 보라 돈 돈 보라 돈돈 돈돈돈 돈을 보라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三綱五倫)이 다 보이고 조금 이따 나는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져도 보이는 건 돈밖에 또 있느냐. 돈돈 돈 돈 보라 돈.” 떡국집으로 들어를 가서 떡국 한 톨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릿집으로 들어를 가서 막걸리 두 톨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느리우고 죽통을 빼뜨리고, “대장부(大丈夫) 한 걸음에 엽전(葉錢) 설흔 닷냥이 들어를 간다. 얼씨구나 돈 보라.”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딜 갔다가 집 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루루루 쫓아 나와서 영접(迎接)하는 게 도리(道理) 옳지. 계집 이 사람이 당돌(唐突)이 앉아서 좌이부동(坐而不動)이 웬일인가, 에라 이 사람 몸쓸 사람.”

중중모리

홍보 마누라 나온다 홍보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봐.”, “놓아두어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根本)을 자네 아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孟嘗君)의 수레바퀴처럼 둥굴 둥굴게 생긴 돈 부귀공명(富貴功名)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 나 돈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절시구 돈돈돈 돈돈돈 돈 보라.”

### 아니리

“이 돈 가지고 쌀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구름하게 열한 통만 쑤소.” 육죽을 쑤어서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 먹여 노니 ㉞모두 식곤증(食困症)이 나서 앉은자리에서 고자백이 잠을 자는디 죽 말국이 코끝에서 소주(燒酒) 후주 내리듯 땡강땡강하갸다. 흥보 마누라가 이 틈을 타서 막내둥이를 하나 만들었지. “여보 영감, 이 돈이 무슨 돈이오, 돈 속이나 좀 압시다.”,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닐세.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혔는데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석 냥씩 준다기에 대신 가기로 샅전으로 받아온 돈이제.”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아이구 여보 영감, 중한 가장 매품 팔아 먹고산다는 말은 고금천지(古今天地) 어디 가 보았소.”

### 진양조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천불생무연지인(天不生無緣之人)이요 지불장무명지초(地不長無名之草)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궁기가 있는 법이니 설마한들 죽사리까. 제발 덕분에 가지 마오. 병영 영문 곤장 한 대를 맞고 보면 종신(終身) 골병(骨病)이 된답디다. 여보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를 마오.”

(중략)

“아니 박 생원 아니시오.”, “알아맞혔구만그러.”, “당신 꿏았소.”, “꿏다니, 계란(鷄卵)이 꿏지 사람이 꿏아. 그래 어쨌단 말인가.”, “박 생원 대신이라고 와서 곤장 열 대 맞고 돈 설흔 냥 받아 가지고 벌써 떠나갔소.” 흥보가 기가 막혀, “그놈이 어떻게 생겼든가.”, “키가 구 척(九尺)이요 방울눈에 기운(氣運)이 좋습디다.”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허허 전날 밤에 우리 마누라가 밤새도록 울더니마는 옆집 께수란 놈이 발등거리를 하였구나.”

- 작자 미상, 「흥보가」

### 1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흥보의 처는 남편을 걱정하며 매품팔이를 만류하고 있다.
- ② 흥보 옆집 께수는 흥보의 매품팔이를 가로채 돈을 받아 갔다.

- ③ 흥보는 돈을 벌게 되어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 기뻐했다.
- ④ 흥보 자식들은 집안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욕심을 내세우고 있다.
- ⑤ 호방은 흥보의 양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매품팔이를 권하였다.

###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한 양반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당시 사회가 부패가 만연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가부장의 권위 의식이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시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화폐의 힘이 커진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 ⑤ 평민 계층의 양반 계층에 대한 불만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15. ㉞~㉞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㉞: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여 언어유희를 하고 있다.
- ② ㉞: 시종일관 양반인 흥보는 말을 낮추고 호방은 말을 높이고 있다.
- ③ ㉞: 흥보의 심리를 중심으로 아전의 행동을 묘사한 것으로, 겨우 만져보는 돈이라 그 소리를 웅장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㉞: 지금까지 궁핍으로 인해 누적된 심리적 억압감에서 해방이나 된 듯이 돈타령을 신명나게 하고 있다.
- ⑤ ㉞: 특유의 모습으로 가난에 대한 장면을 희화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⑤

윗글에서는 장면의 극대화는 등장하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상황의 긴박함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 ① 윗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순행적 구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 ② 윗글은 판소리 사설로, 산문체와 운문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 ③ 윗글은 토속적인 어휘와 과장된 표현, 언어유희 등을 통한 해학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 ④ 윗글에서는 일상적 구어와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2. [정답] ②

ㄱ. 흥보의 말 중에 '구사일생(九死一生)'이라는 사자성어가 활용되었으며, 이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음'의 뜻으로 여기서는 '절망적이지만 혹시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ㄴ. 가난에 대한 해학적 표현과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 상황에 대한 과장 등 해학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이다.

ㄷ. [A]에서는 서술자의 개입과 상황에 대한 논평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ㄹ. [A]에서는 반어적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 3. [정답] ④

흥보가 오랜만에 돈을 얻었고, 흥보와 흥보의 아내가 돈타령을 하며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암울한 현실을 힘을 모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오랜만에 돈을 보게 되어 기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① '육죽을 쑤어서 ~ 땡강땡강하겠다.'라고 제시된 장면에서 해학과 골계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소주(燒酒) 후주 내리듯 땡강땡강하겠다.'에서 해학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② 매품을 팔아 돈을 벌려는 흥보의 상황에서 민중의 생활이 어려웠던 당시 사회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③ 윗글에서는 가난으로 고통받는 흥보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흥보가 나라에 곡식을 꾸러하는 모습을 통해 당대 민중들 역시 가난에 고통받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⑤ 흥보와 사령이 "당신 굶았소.", "굶다니, 계란(鷄卵)이 굶지 사람이 굶아."라며 대화하는 장면에서 해학이 드러나며, 이러한 표현은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삶의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 4. [정답] ④

[C]에서는 흥보와 흥보의 처 간의 갈등이 등장하지 않는다.

①, ② [B]는 아니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돈의 출처를 흥보의 아내가 알게 되고, 이 상황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장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정서적 이완도 느낄 수 있다.

③ [C]에서는 흥보가 매품 파는 것을 만류하며, 어휘 반복을 통해 흥보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⑤ [B]는 아니리이고, [C]는 창이기 때문에, 청중은 작품 속 세계와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극적 긴장과 이완을 체험할 수 있다.

### 5. [정답] ①

삼강오륜은 유교의 도덕에서 강조하고 있는 덕목들인데, 흥보는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해야 하는 양반의 신분임에도 돈을 유교적 덕목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당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 따르면 '당대의 구어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언어의 사실성을 통해 이를 형상화하고 있'는 인물은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소개하였기 때문에, ①에서 '관념적인 인물'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② 매품팔이가 행해지는 모습을 통해 사회적으로 부패가 만연하고 민중의 생활이 어려웠던 당시 사회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당시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④ 흥보가 양반의 신분임에도 호방에게 말을 높이는 것에서 당시 신분 사회가 붕괴되고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었음이 드러난다.

⑤ 윷글의 '아이고 아이고 ~ 이 지경(地境)이 웬 말이나.'에서 흥보는 '팔자 좋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과 자신을 대조한다. 이를 통해 빈부 격차가 심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다.

6. [정답] ⑤

윷글의 갈래는 판소리 사설로,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① 판소리는 음악과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예술이다.

②, ④ 윷글은 일상적 구어와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판소리의 구성 요소는 크게 창과 아니리, 발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창자의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한 요소이다.

7. [정답] ⑤

읍내로 가는 흥보의 옷차림에서 가난한 처지이지만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중시하는 흥보의 모습이 해학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① 흥보의 처는 흥보가 매품을 팔아 돈을 버는 것에 반대하지만, 그의 자식들까지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② 삼강오륜은 유교의 도덕에서 강조하고 있는 덕목들인데, 흥보는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해야 하는 양반의 신분임에도 돈을 유교적 덕목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③ 흥보가 양반의 신분임에도 호방에게 말을 높이는 것에서 당시 신분 사회가 붕괴되고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었음이 드러난다.

④ 흥보와 흥보의 처가 현실에 대해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8. [정답] ④

윷글은 토속적인 어휘와 과장된 표현, 언어유희 등을 통한 해학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즉, 인물이 처한 가난이라는 상황을 서민 특유의 건

강한 웃음으로 희화화하고 있다. 따라서 비장미보다 골재미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윷글은 일상적 구어와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윷글의 갈래는 판소리이다. 판소리는 창과 아니리가 번갈아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정서적 긴장과 이완이 교차되고 있다.

③ 윷글은 양반 계층의 한문투와 평민의 비속어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향유 계층이 폭넓고 다양했음이 드러난다.

⑤ 읍내로 가는 흥보의 옷차림을 장황하게 묘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가난한 처지이지만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중시하는 흥보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9. [정답] ①

(가)는 진양조로 노래하며, 가난한 형편에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는 흥보 처의 슬픔과 모성애가 드러난다. 따라서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나)에서는 과장된 표현, 언어유희 등을 통한 해학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읍내로 가는 흥보의 옷차림을 장황하게 묘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가난한 처지이지만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중시하는 흥보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④ (라)의 흥보와 호방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흥보가 양반의 신분임에도 호방에게 말을 높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신분 사회가 붕괴되고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었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매품을 원하는 호방의 말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부패가 만연하였음이 드러난다.

⑤ (마)에서 흥보 이외에도 매품을 팔러 온 다른 인물이 제시됨으로써, 이러한 가난이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였음을 보여 준다.

10. [정답] ②

윷글에서 창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 (다)이고, 아니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 (라), (마)이다. 이때 (가)는 진양조로, (다)는 자진모리 장단으로 노래를 한다.

①, ③, ④, ⑤는 옳지 않은 선지이다.

11. [정답] ④

윗글은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한 윤리소설이면서 인과응보에 따른 권선징악이라는 주제와 사상을 지닌 작품이다. 그런데 이를 양반층이 참여하여 주제 형성이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② 뒷부분 줄거리에서 흥보가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통해 부자가 되는 결말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행복한 결말을 통해 민중들은 정서적 만족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민중의 소망이 반영된 결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③ 형제간의 우애를 되찾는다는 내용은 유교적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

⑤ 비현실적인 사건을 통해 흥보가 부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 빈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12. [정답] ④

㉠에서는 가난으로 고통받는 흥보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가장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장단은 진양조 장단이다. ㉡은 중모리 장단에 해당하는데, 담담하고 안정감을 주며 태연한 느낌을 주는 장단이기 때문에 매품을 팔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온 흥보의 모습을 나타내기에는 적합하다. ㉢은 중중모리 장단으로, 이는 흥취를 돋우며 우아한 느낌을 주는 장단이기 때문에 흥보와 흥보의 아내가 돈 타령을 하며 기뻐하는 장면을 드러내는 데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13. [정답] ⑤

흥보가 매품을 팔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마삿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호방이 흥보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매품팔이를 권고하였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① 흥보의 처는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라고 말하며 흥보의 매품팔이를 만류하고 있다.

② 흥보와 사령의 대화에서 흥보 옆집 궂수가 흥보의 매품팔이를 가로채 돈을 받아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매품을 팔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온 흥보의 모습에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④ 철 없는 흥보 자식들의 요구를 통해 자식들은 집안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욕심을 내세우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4. [정답] ⑤

화폐가 사회 전반에서 큰 위력을 행사하자 관료들의 부패가 심해졌고, 이에 따라 민중의 생활도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이를 평민 계층의 양반 계층에 대한 불만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흥보는 양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한 양반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흥보와 호방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호방이 흥보에게 매품을 권하고 있는데, 이에서 사회적으로 부패가 만연하고 민중의 생활이 어려웠던 당시 사회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③ 마삿을 받고 집에 돌아가는 흥보의 모습에서 가부장적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④ 돈을 벌기 위해 매품까지 팔아야 하는 흥보의 상황을 통해 화폐의 힘이 커졌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는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인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15. [정답] ②

㉠에서 흥보가 양반의 신분임에도 호방에게 말을 높이고 있다. 이에서 당시 신분 사회가 붕괴되고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시종 일관 양반인 흥보는 말을 낮추고 호방은 말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① ㉡에서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가 드러난다.

③ '철렁'과 같은 의성어를 사용하여 아전의 행동을 웅장하게 묘사하였고, 이는 흥보가 겨우 만져보는 돈이라 긴장하고 있는 상태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④ 중중모리 장단을 사용하여 흥취를 돋우고 있는데, 이는 춤을 추거나 화려하고 요란한 장면을 나타



내기에 적합한 장단이다. 흥보 가족은 지금까지 궁핍으로 인해 심리적 억압감이 심했을 것인데, 이에 대한 해방을 맞은 것처럼 신명이 난 상태이다.

⑤ 육죽을 먹고 식곤증에 빠져 잠을 자는 모습에서 해학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16. [정답] ④

㉠은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 가난한 처지이지만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를 해학적으로 제시하여 흥보를 희화화시키고 있다.

① ㉠과 ㉡ 모두 인물의 궁핍한 처지가 묘사되어 있다.

②, ③ ㉠에서는 과장된 표현, 언어유희 등을 통한 해학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⑤ ㉡에서는 읍내로 가는 흥보의 옷차림을 장황하게 묘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가난한 처지이지만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이를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17. [정답] ⑤

아내가 흥보의 매품팔이를 만류하는 대목에서 진양조가 사용된 것은 맞지만, 진양조는 가장 느린 판소리 곡조로 애절하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따라서 슬픈 분위기를 나타내는 데에 적합한 것이지, 급박한 장면에 주로 어울린다고 볼 수 없다.

① 판소리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관객에 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전달하는데, '저 아전(衙前) 거동(舉動)을 보아라.'와 같은 구절에서 이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현장감을 부여하기 위해 운문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기도 한다고 하였으며, '우루루루루'와 같은 음성 상징어가 이에 해당한다.

③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에서 어휘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aaba 구조를 활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이놈아'와 같은 비속어에서는 평민 계층의 특성, '천불생무연지인(天不生無緣之人)이요 지불장무명지초(地不長無名之草)라.'와 같은 한자 어구에서는 양반 계층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는 것을 통해 여러 계층의 언어가 공

존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8. [정답] ①

㉠은 가난으로 고통받는 흥보 가족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애절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진양조 장단과 가장 알맞다.

②, ③, ④, 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19. [정답] ②

흥보의 처가 흥보에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모습은 윗글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① 흥보의 큰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나 장가 좀 되려 주시오.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손자(孫子)가 늦어 갑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효도를 핑계로 자신의 장가를 조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③ 흥보의 처가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④ 흥보는 매품을 팔아 마삿이라도 가져가야 할 정도로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⑤ 흥보는 마삿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며 모처럼의 가장 역할에 자부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가부장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20. [정답] ③

흥보는 가난한 자신의 형편 때문에 말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는 그만큼 당시 신분 사회가 많이 붕괴되고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① 관아로부터 환자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를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환자를 얻으려 질청으로 들어가는 흥보의 모습에서 가난한 처지이지만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중시하는 흥보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서 양반들에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의복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④ 윗글에서는 오히려 매품을 사고파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형벌의 집행이 엄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흥보의 말을 통해 돈을 유교적 덕목보다 우선시